2015.5.17. 참사랑교회 주일2부예배 메시지

네피림 시대

창세기 6:1-9

김제동 목사님

요약

서론 : 네피림 시대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의미

1. 네피림 시대 이기는 믿음 :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방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시키도록

3. 방주를 지을 주역 : 하나님이 영세 전에 우리를 이 일을 위해 선택

결론 : 네피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 심판받을 시대를 살리도록

서론 : 네피림 시대의 의미

네피림 시대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지만, 네피림 시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네피림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피림 시대의 패러다임은 다수주의다.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이 맞다 하면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 한다. 네피림 시대의 경제는, 있는 자만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다. 특히 미국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가이다. 크레더빌리티(credibility)라고 한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받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느냐다.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 네피림 시대의 교육은 무엇인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전부 말하고 있다.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굉장히 혼돈이 왔다.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들은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리스천 사립학교에 갔는데,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God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한국어로 들었던 '하나님'이 영어로 God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자기는 God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We believe in god, we are in same god."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알파벳을 쓰는 모든 언어권에서는 God이라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god라 하면 귀신인데, 발음은 둘 다 똑같다. 십여 년 전에 9.11 사건이 있었지 않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커다란 한풀이 굿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였다. 여기에 모슬렘도 올라와서 "Mighty god." 중도 올라와서 "Almighty god." 가톨릭도 올라와서 "Almighty god." 무당도 올라와서 "My god."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올라와서 "Heavenly God." 이러니까 네피림 시대는 우리들이 바르게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한자를 쓰는 중국계 나라도 귀신 신(神)자를 하나님에도 같이 쓴다. 일본에서도 카미사마(神様)라고 같이 쓴다. 알파벳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어에서도, '엘로힘'을 대문자로 쓰면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소문자로 쓰면 블레셋의 귀신이라고 된다. 네피림 시대의 교육은, 모든 교과서에서 크리스천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빼 버리고 있다. 하나로 만들고 있다. 통합종교의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촌스럽고, 바보스럽고, 덤 앤 폴리쉬(dumb and foolish)가 되어 버리고 있다. 그런데 마호메트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멋있는 행위라 하여 봐준다.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보혈 같은 찬송을 부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네피림 시대의 교육이다. 네피림 시대의 경제는 어떤가? 있는 자가 쓰는 것이고, 없는 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한다.

1. 네피림 시대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1) 방주를 짓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가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 걸렸다. 몇 주 전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류목사님이, 영산업인들이 금융, 부동산 쪽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 조선소 가 본 적이 있는가? 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본문을 입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네피림 시대는 돈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영웅이 되는 시대, 하나님을 모멸하는 자가 칭찬받는 시대였다. 그런데 120년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노아가 은행 찾아다닌 기록은 성경에 없다. 노아가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안 되어서, 땅 주인이 자꾸 빼 달라, 옮겨달라 해서 조선소를 옮겼던 기록도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노아의 믿음인 줄 믿는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 인정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송하는 교회는 세상에 만 곳도 안 될 것이다, 아니, 5천 곳, 3천 곳도 안 될지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강단에서 내가 서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노아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집을 사려면 어디에 있는 집인지를 찾아보지 않나?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 돈이 부족해서인가? 부동산 업자가 소개해 주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기식하는 모든 동물을 갖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배라고 하면, 달러로, 유로로, 엔화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대 아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응답이며, 우리의 배경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참사랑교회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했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공사장을 막고 데모했다, 노조 결성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기록이 한 마디도 없다.

(2) 방주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120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판이 오는 날까지가 120년이다. 120년 뒤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네피림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한다. 내가 싫으면 안 한다. 내가 좋아야 한다. 결혼도 내가 좋으면 한다. 내가 선택한다. 방주를 짓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는데도 그렇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마태복음 16:13-20에 나오는 다섯 가지 종류의 교인이 이때도 있었을 것이다. 세례요한처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자들, 엘리야와 같이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들, 예레미야같은 눈물의 예언자들, 윤리와 도덕, 율법에 강한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창7:1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혼자만이 믿었다는 말이 된다.

2.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한다.

(1)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육 현장

우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강의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교장선생님이 장로님이고 선생님이 장로님이더라도 수업만 가르쳐야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내보내야 한다. 요게벳이 했듯이, 방주에 싸서 나일강에 띄워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 열세 명을 데리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에 갔다. 거기에 나바호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칸 인디언을 만나는 시간이라 흥분들을 하더라.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하고 똑같이 생겼어." (웃음) 눈, 코, 입 있고, 게다가 몽골리안들이니까 얼굴도 좀 닮았다. 그런 분들을 만났다. 불빛 하나 없는 길을 네 시간 동안 가니까 아이들이 차에서 다 지쳐 있었는데, 멀리 불빛들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City다!"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모른다. 여관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 마을에 2층 빌딩이 하나도 없었다. "어, 여기가 무슨 다운타운이에요? 아니죠?" "맞아." "저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요? 깃털 달린 옷 입고 말 타는 사람도 없는데요?"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인걸."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 봐도 사막 뿐이다. 흔한 월 마트를 하나 가려고 해도 한 시간을 차로 가야 한다. 맥도널드를 가려면 1시간 20분을 가야 한다. 미국이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의 언어를 말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참사랑교회가 있는 오금동으로 옮겨와 보자. 오금동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왜 가는가? 똑같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한, 네피림 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다. 네피림 시대의 문화 형태 중 하나가 뉴 에이지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한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든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네피림 시대는 무서운 것이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없다. 다 god다. 크게 쓰면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작게 쓰면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들이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한국어만이 유독 하나님과 귀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2) 변질되지 않도록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각인시켜야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도, 또다시 가나안 땅의 귀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부르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인시켜 주셔야 한다. 각인(刻印)이 뭔가? 뼈에 새기는 것이다. 뼈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참사랑교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교회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다. 미래 속에 있으면서 미래를 앞당기는 교회다.

3.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를 지을 주역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1) 자기 마음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창1:27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다. 그런데 네피림 시대는 남자가 스스로 남자 되기를 부인하고, 여자가 여자임을 부인하는 시대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시대다. 앞으로 의사가 보증하는 남자, 하나님이 보증하는 남자를 구분해야 할 판이다. 남자가 여자라 하는 것은 성령충만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뭔가? 둘 중 하나 아닌가? 이제 미국에서는 나이 3, 4세 때 성별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그게 자랑스럽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안 된다. 절대 못 한다. 여자가 남자가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3, 4세 아이들이 이것을 알겠는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하는가? 결혼을 해 봤더니 자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보니까 성전환자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사위, 만나시기 바란다. (웃음) 성전환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 '신이 만든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 아닌가? 성령충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나는 마가복음 5장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그런 것을 두고 비판하면 잡혀간다고 하던데, 나는 그래도 당당히 이야기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는가. 창1:2의 말씀과 같이, 흑암, 혼돈, 공허의 시대가 네피림 시대다.

(2)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부터 부르셨는가?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 나는 창1장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영원 전, 태초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렘넌트에게 부탁한다. 나는 인디언들이 땅을 빼앗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기 말은 있는데 자기 글이 없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흉내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쓸 수 있는 글, 예수 그리스도라 쓸 수 있는 글이 있다. 우리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사용해서 누리시기 바란다. 라틴어도 중국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다. 미국 처음 갔을 때는 영어를 못 하니까 한국인이라는 게 원망스러웠는데, (웃음)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결론 : 네피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네피림의 시대, 하나님의 심정을 보자. 창6:5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뭘 하시는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보시며 근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심판이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세상은 better world를 말한다. 질병 없는, 눈물 없는, 고통 없는 사회를 말한다. 가능하겠는가? 뉴 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은 이 땅을 그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 없어지겠는가. 창3장 이후의 사회에서 질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든지, 질병을 정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인가?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사랑교회에 9개월 만에 오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참사랑교회에 천 년의 응답이 임했음을 느낀다. 롬16:25-27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네피림 시대, 무당이 지배하는 시대, 정신병이 난무하는 시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며, 마음이 악하고,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 전에 부르사, 4만 40만 1천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특히 최정웅 목사님과 정윤돈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 오금동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명무패, 천명필승, 천명완성의 응답 속에 서 있는 이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서울이 살아나게 하시며, 한국이 살아나게 하시며, 전 세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